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

- 천안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천안시(天安市)는 1914년에 천안군·목천군·직산군이 통합되어 천안군이 되었다. 그후 1963년에 천안시와 천원군(1991년에 천안군이 됨)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통합되어 현재의 천안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 천안시의 경역은 천안·목천·직산이라는 3개의 고을과 관련이 있다.

천안이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13년(930)에 처음 등장한다. 영호남과 충청도가 만나 경기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후삼국시대부터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특히 이 지역의 가치를 주목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이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천안을 이동거점으로 삼았다. 그는 (후)백제와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태조 13년(930) 동도솔과 서도솔을 합치고, 탕정·대목악군·사신을 합쳐 천안부(天安府)로 삼고 이곳에 도독(都督)을 두었다. 이후 천안부는 성종 14년(995)에 환주로 고치고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 환주(歡州)라는 지명은 백제 온조가 옛 마한지역을 통일하고 백제를 이룩할 때 환성(歡城)이라 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환주의 도단련사 설치는 10년 만인 목종 8년(1005)에 폐하였으며, 현종 9년(1018)에 다시 천안으로 고치고 지천안부사(知天安府事)가 수령으로 부임하는 고을이 되었다. 고종 43년(1256)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천안부의 치소가 선장도로 들어

갔다가 뒤에 육지로 나왔고, 이후 충선왕 2년(1310) 여러 목과 부를 도태시키면서 영주(寧州)로 고쳤다가, 공민왕 11년(1362)에 다시 천안부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천안부는 태종 13년(1413)에 전국적으로 도호부 이상의 고을에만 ‘州(주)’라는 고을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때 일시적으로 영산군(寧山郡)으로 고쳤으나, 태종 16년(1416) 다시 천안군으로 고쳤으며, 이후 조선 말기까지 종4품의 군수가 수령으로 부임하는 천안군으로 존속하였다.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자 공주부 천안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는 충청남도 천안군(4등군)이 되었으며, 1914년의 지방제도 개편에 의해 천안군 목천군 직산군이 합쳐진 천안군이 되었다.

목천은 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郡), 신라의 대록군(大麓郡)이었던 것이 고려 성종 때에 목주(木州)로 개칭되면서 청주에 속했다가, 명종 2년(1172)에 이르러서 감무가 파견되면서 목주현(木州縣)으로 독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 이상의 큰 고을만 ‘주(州)’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그 외의 군현은 모두 ‘산(山)’ 자나 ‘천(川)’ 자로 바꾸는 조치에 의해 목주는 목천(木川)으로 고쳤으며, 이때부터 종전의 감무 대신 현감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목천현은 1895년의 23부제에서 공주부 목천군으로 바뀌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목천군(4등군)이 되었다. 1914년에 천안군에 병합되었다.

직산은 본래 백제의 수도 위례성(慰禮城)이라는 설이 있는데, 학술적인 고증은 쉽지 않다. 이 곳은 뒤에 고구려가 취해서 사산현(蛇山縣)으로 고쳤고, 통일신라시대에도 그대로 사산현이라고 하여 백성군(白城郡 : 지금의 안성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940)에 직산현(稷山縣)으로 고치고, 현종 9년(1018)에 천안부의 속현이 되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1393)에 직산 고을 출신인 환관 김연(金淵)이 명나라에 들어가 명나라 황제를 모시고 있다가, 명나라의 사신(使臣)이 되어 조선으로 와서 자기 고향인 직산 고을의 승격을 청하여 잠시 지직산군사(知稷山郡事)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다시 태종 1년(1401)에 지군사 고을에서 현으로 강등시켜 감무를 두었다가, 태종 13년(1413)부터 감무제를 혁파하고 이를 현감으로 바꾸면서 종6품의 현감이 수령으로 부임하는 고을이 되었다. 직산현은 연산군 11년(1505) 한때 경기도에 예속되었다가 중종 초에 다시 충청도로 환원하였다. 1895년(고종 32)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직산현에서 직산군이 되어 공주부 관할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직산군(4등군)으로 편제되었다. 1914년 천안군으로 병합되었다.